

도, 내년 국가예산 확보 대장정 시동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 정책환경 유동성 증가·정부 재정기조 변화 대응·사업 발굴 단계부터 대응방안 논의
도-전북연-시군 협업, 도 경제체질 혁신·미래산업 생태계 사업 중점·부처 지출한도액 배정 전까지 신규사업 발굴키로

전북도가 25일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보고회를 개최하고 2024년 국가 예산 최대 확보 위한 대장정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는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전북도 관련 실국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북도의 경제체질 혁신과 미래산업 생태계 전환 등 전북경제 르네상스 도약과 전북 주도의 새로운 전북시대 견인을 위한 2024년 신규사업 발굴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국가예산 확보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25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2024~2025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2차 발굴 보고회에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실국장들이 회의를 갖고 있다.

2022~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정부는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 재정지출 증가율을 2022~26년 기간 중 연평균 4.6%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 관리하고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를 최대한 추진 계획으로, 지속적 국가예산 증액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사업발굴과 치밀한 전략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지난해 8월부터 △전북 발전을 견인할 미래 신성장 동력확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등 사회·경제구조 변화 선제적 대응 △新 양극화 해소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환경·안전 개선 등을 2024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중점 발굴 방향으로 설정하고 국책사업 발굴 추진단과 전북연구원, 시군과 신규사업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현재까지 발굴된 2024~25년 국가 예산 신규사업은 418건 총사업비 10조 6천억 원 규모로 산업·경제, 농생명, 문화·체육·관광,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환경·안전·복지 등 전북 발전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각 분야별 주요사업은 산업·경제 분야로 △자율주행 상용차 보안 신뢰성 실증기반 구축,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구축, △수소 전기차 중대형 핵심부품 비파괴 3D 안전성 검사 플랫폼 구축 등이 있다.
농생명 분야는 △푸드테크 융합 연구지원센터 구축, △곡물(밀) 전용

비축시설 구축, △새만금 헴프(Hemp) 클러스터 단지 조성, 문화·관광 분야는 △국립수중고교와 교육훈련센터 건립, △국립중앙도서관 전주분관 건립 등이 있으며, 새만금·SOC분야로 △새만금 그린인프라 조성, △새만금 환경생태유지 2·2단계 조성, △신규 국도·국지도 건설(4개소), 환경·안전·복지 분야는 △지덕권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 등이 있다.
향후 전북도는 올해 국가예산 9조 원 시대 개막의 기세를 이어 올해에 도 국가예산 최대확보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시군·전북연과

함께 3월 중앙부처 지출한도액 배정 전까지 내실 있는 신규사업을 지속·추가 발굴하고, 이번에 발굴된 신규사업들은 정부 정책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리를 구체화해 부처 예산안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김 지사는 “국외의 경제여건 악화와 불확실성 증가 등 국가예산 확보 여건이 여의치 않은 상황인 만큼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정책방향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경쟁력 있는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부처 단계부터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가축생명자원관리 실적 '탁월'

도 축산연구소, 최소 보존·관리 실적 100% 이상 달성

전북도 축산연구소의 최소 보존·관리 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축산연구소는 농촌진흥청에서 전국 11개 가축생명자원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2년도 운영실적 평가에서 5년 연속 최고등급인 '탁월'이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25일 밝혔다.
연구소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5조(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따라 2007년부터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으로 지정돼 우리나라 고유 한우 종인 최소(희소한우)를 보존·관리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생축자원의 증수 및 감수, 동결정액 생산 및 농가보

급 등에서 계획 대비 모두 100% 이상을 달성하는 등 최소 유지·관리에 뛰어난 실적을 달성했다.
연구소는 그간 최소의 형질 고정 및 사육기반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사육관리에 매진해 최소 씨수소 88두를 배출했다. 이를 통해 8만1,878개의 동결정액을 생산해 매년 농가 공급과 국가기관 중복 보존을 실시해 현재 5만5,611개의 동결정액을 보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최소 산업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희소(희소)생축·동결자원 유지 및 확보에 힘쓰고, 도내 육종가 상위 개체를 씨수소로 선발해 개량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도민과 함께하는 새만금수질보전' 공모

새만금유역 민간주도의 새만금 수질보전활동·31일까지 신청

전북도가 31일까지 도민과 함께하는 새만금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을 접수한다. 도민과 함께하는 새만금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은 민간단체 등이 새만금 유역 수질보전활동, 생태계 보전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새만금 수질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사업은 수질보전활동 등 수행할 능력이 있고 전북도에 사무소를 두고 활동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로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모든 단체는 신청이 가능하다.
수질보전활동 분야는 △비점오염원 제거, △교육·홍보 분야 등이며, 세부적으로는 △수중 및 수변 쓰레기 수거 등 비점오염원 정화활동 및 쓰레기 상

습투기 지역에 꽃길조성 △새만금 수질보전 관련 교육·홍보 활동 등이다.
공모사업은 사전평가단의 사업계획서 등 서류 심사 후 현지심사를 거쳐 전라북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단계별로 1~2천만원을 지원받아 올 한 해 동안 '도민과 함께하는 새만금 수질보전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단체는 전북도청 홈페이지(www.jonbuk.gokr) 일련번호(공고/고시)에 게재된 공모계획을 참고해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 전북도청 새만금수질개선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

도민이 안전한 전북 만들기 '총력'... 눈부신 성과 거뒀

도-경찰청-유관기관 협업해 행안부 '지역안전지수 범죄부문'... 광역지자체 중 '1등급'
경찰청, 2022년 국민 체감안전도 조사 결과... 전년보다 1.8점 상승·80.9점으로 '전국 3위'

전북도와 전북경찰청이 합심해 도민이 안전한 전북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가 연이은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전북도는 행정안전부가 공표한 지역안전지수 범죄부문에서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1등급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경찰청 2022년 국민 체감안전도 조사에서도 전년보다 1.8점 상승한 80.9점으로 전국 3위를 기록했다. 특히, 범죄안전도는 85.4점으로 전국 대비 2.4점 높은 수준이다.
전북도는 전북경찰청과 협업을 통해 다양한 범죄 예방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21년 7월 자치경찰제

를 도입했다.
전북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형규, 이하 자치위)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도경찰청, 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분야별 민간전문가와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도경찰청과 상설협의체를 운영하며 지역맞춤형 치안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자치위는 치안정책 수립단계부터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치안활동에 도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도민 설문조사와 정책제안을 통해 도민들이 원하는 치안시책을 발굴하고, 자치경찰 도민 정책자문단(178

명)과 청년정책자문단 메신저-폴(65명)을 구성해 도민들이 직접 정책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다.
이와 함께 지난 한 해동안 접수된 도민 정책제안 161건과 정책자문단에서 제안한 50여 건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대학가 원룸 밀집지역 여성 안전 프로젝트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이용 문화 조성 △스토킹 피해자 물품 지원사업 등 생활밀착형 치안시책을 추진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전북도, 경찰청, 136센터와 협업을 통해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개소, 스톱킹 피해자에게 법률, 의료, 임시보호시설 원스톱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에서 중점 추진중인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CPTED)은 관주도의 일방적인 환경개선이 아닌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주민참여형 범죄예방 셉테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 공모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더 행복한 도민을 위한 범죄예방 개선사업'은 각 기관별로 일회성·단편적으로 추진하던 셉테드 사업에서 벗어나 전북도, 전북경찰청, 도교육청, 법무부, 전주시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종합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돼 호응을 얻고 있다. /김재훈 기자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위해 '머리 맞대'

도 선관위, 3월 조합장선거·4월 재선거 관리방안 논의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위원회 4층 회의실에서 도위원회 간부와 15개 구·시·군위원회 사무국(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시달하고 '제8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및 '4·5 재선거'의 성공적 관리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선거관리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기반 공고와 △미래지향적 선거관리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각 분야별 관리방안을 시달하고 주요현안을 논의

했다. 특히 3월8일 실시하는 조합장선거에서는 조합의 특성과 자율성을 존중해 선거를 관리하되, '돈 선거' 적절 등을 통한 공명선거 정착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위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바탕 불법선거를 차단 예정이다.
4월5일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선거에서도 정확하고 안정적인 선거관리로 선거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사전안내와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통해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을 실현키로 했다. /뉴스

고창군 공고 제2023-159호

평지천 하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안) 주민공람 공고

평지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에 따라 하천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하천법 제10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주민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관공서로 내용을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하천구역의 개요
· 사업명 : 평지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실시시설내용

하천명	행정구역	위 치		연장 (km)	비고
		시 경	중 경		
평지천	고창군 아산면 고창군 성송면 고창군 고수면	전북 고창군 고수면 평지리 384-10번지	전북 고창군 아산면 목동리 585번지 (주진천 합류점)	8.04	지방

- 2.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23년 01월 20일 ~ 2023년 02월 03일(15일간) 9:00~18:00
· 공람장소 : 전라북도 동북물관리과, 고창군 안전총괄과, 아산면 행정복지센터, 성송면 행정복지센터, 고수면 행정복지센터

- 3. 주민의견 제출방법
· 제출시기 및 장소 : 공람기간, 상소와 동일
· 제출방법 : 방문접수에 비치된 서식(공람의견서)을 이용하여 서면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 안전총괄과(063-560-26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20일 고창군수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